

세월호 참사 보도에 나타난 언론의 가상성

The Virtuality Shown in the Media Coverage of the Sewol Ferry Disaster

이성욱

한라대학교 정보통신방송공학부

Sung Wook Lee(lesw@halla.ac.kr)

요약

본 연구는 세월호 참사 보도에 드러난 '가상성'을 중심으로 매개된 현실과 실제 현실의 간극을 조명하고자 기획되었다. 방송기자연합회 저널리즘 특별위원회는 한국 언론의 세월호 보도 양상을 가리켜 저널리즘의 침몰이라고 명명할 만큼 세월호 보도는 현실 반영에 커다란 문제점을 드러냈다. 언론 보도의 가상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현실보다 보도된 현실, 즉 매개 표상들을 더욱 많이 접촉하고 경험할 때, 수용자는 '실제 현실'에 근거하여 행동하기보다는 '매개된 현실'로부터 받아들인 것을 실제 상황이라 여기고 이에 근거해 반응한다는 데 있다. 많은 연구에서 매체의 수용자들은 매개현실을 실제 외부세계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관찰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사상사에서 다루어진 '가상' 개념에 대한 중요 담론을 검토하여 매개현실의 문제와 한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매개현실의 가상성은 여론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권력의 사회화, 사회 통제, 사회주도권 개념들과도 쉽게 연결 지을 수 있었다.

■ 중심어 : | 가상성 | 현실 | 매개 | 실제 | 보도 |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look at a gap between what is reported and what is real, based on 'virtuality' shown in the media coverage of the Sewol ferry disaster. The way the Korean media reported the disaster raised serious concern in describing realities as the coverage was dotted with omitted, diluted, misleading, false and biased information, dubbed as the sinking of journalism by the Special Committee of the Korea Broadcasting Journalist Association. Virtuality can be problematic in journalism since users, when frequently exposed to 'mediated reality' or mediated presentment, often consider it actual and respond to it, rather than reacting to 'actual reality'. Many studies have found that media users tend to perceive mediated reality as an actual outside world. This paper aimed to explain signification of media reporting and limitations of user perception by reviewing major discussions and arguments on virtuality in previous research and history of thoughts. It was easy to link virtuality of mediated reality to the role of the media, which impact public opinion and change the flow of an event, and to other concepts such as the socialization of power, social control and social hegemony.

■ keyword : | Virtuality | Media | Real | Reality | Coverage |

I. 들어가는 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후 세월호 참사 보도는 세월호 희생자 유족과 10만여 명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 세월호 현장에 있었던 기자와 관계자들, 적지 않은 수의 매체 수용자들에게 상흔을 입힐 만큼 현실 반영에 커다란 문제점을 드러냈다. 세월호 보도는 누락·희석·오도·허위·편향된 방식으로 실제와 관계하면서 도 동시에 그것과는 차별적인 ‘가상성’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의 가상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현실보다 보도(매개)된 현실, 즉 표상들을 더욱 많이 접촉하고 경험할 때, 수용자는 ‘실제 현실’에 근거해 행동하기보다는 ‘매개된 현실’로부터 받아들인 것을 실제 상황이라 여기고 이에 근거해 반응한다는 데 있다. 사회과학의 연구전통은 매개현실의 인식론적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세 범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들은 각각 가상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첫째, 다원주의 미디어 이론의 기본 가정을 수용하는 실증주의 학자들은 기사의 게이트키퍼(gatekeeping) 과정을 연구한 결과, 미디어 종사자들이 기사를 취사선택함에 있어서 가치판단이 개입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언론보도가 객관적 현실반영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다원주의 미디어이론을 배격하는 마르크시스트 학자들은 미디어의 뉴스 생산 활동은 미디어 소유주의 이윤추구 동기나 자본축적의 논리에 따라 결정된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셋째, 엘리트주의 시각과 현상학적 접근을 선호하는 미국의 미디어 사회학자들은 언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를 미디어 종사자들의 가치기준이나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가 아니라 미디어 보도가 실제로 생산되는 과정에서 정형화된 취재 및 편집관행에서 찾는다[1].”

이러한 관점들은 ‘매개된 현실’이 ‘실제 현실’과 같지 않다는 ‘가상’ 가설의 출발점을 제공한다. 즉 미디어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거울(mirror)’이 아니라 현실을 구성하는 인식의 <창> 혹은 <틀>(frame)로서 존재하며,

어떤 색깔의 유리를 창에 끼우느냐 혹은 어떤 모양으로 틀을 짜느냐에 따라 수용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픽션과 마찬가지로 뉴스나 보도 역시 사건과 경험을 구조화하며, 현실의 복잡한 내용들을 압축하거나 걸러낸다[2]. 본 논문은 선행연구들의 중요한 관점에 유의하여 세월호 참사 보도에 나타난 양상과 유형을 ‘가상성’과 연계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가상의 개념과 이론적 검토

2008년 9월 15일 전 세계를 강타한 경제위기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다음 날 한국 증시는 폭락했다. 태평양 건너에서 일어난 일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데 필요한 시간은 반나절이면 충분했다. 이 사건은 현실에서의 경제적 삶이 가상에서의 경제활동, 즉 투자라든가 인출, 저축, 상환 등 가상세계의 일이 현실세계에 직접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3]. 마커스 A. 도얼과 데이비드 B. 클라크는 그들의 저서에서 “만약 우리가 구현된 가상성을 언급하기만 해도 지루해 하거나, 원격현전(telepresence)이나 텔레토피아, 전자복제 같은 식의 명명에 대해 불쾌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평범한 경험을 버리고 최신 기술의 아주 경이로운 세계를 앞 다투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상실했음을 의미한다[4]”고 하였다. 정보화 시대의 일상에서 가상을 추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SNS를 통해 상상을 공유하는 것, 영화나 TV 드라마 속에 몰입해 감정이 교환되거나, 상호 표현적인 그래픽과 음향의 세계 속에 거주하는 것도 가상과 연관이 있다.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이미지는 마치 ‘현실의 그것처럼’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곳으로 우리를 즉각적으로 이동시켜 준다[5]. 우리는 미디어 속에 있고 미디어 속의 그들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현실에 관계하고 현실의 범주로 진입한 ‘가상’이 매체연구에서 문제적이 되는 것은 가상의 정의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민 것’이라는 용어의 의미로부터 기인된다. ‘가상’의 사전적 개념과 의미를 피상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말에 한자가

다른 '가상'의 동음이의어는 모두 네 가지가 있으며, 이 네 단어에는 모두 '거짓 가(假)'가 포함되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장하는 첫 번째 낱말 가상(假想)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상상하여 만들어진 상황'(virtual)이나 물체를 가리키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사실이라고 가정하여 생각함'을 일컫는다. 가상(假想)의 힘은 여타의 동물들이 지니지 못한 인간만이 지닌 능력으로서, 상정을 통한 소통이나 추상적 사고, 상상, 유추, 동일시, 공감 등을 바탕으로 작용한다. 문학비평용어에서 가상(假想)은 illusion으로 환원되는데, illusion의 어원은 라틴어 illudere이며, '속이다.가장하다'를 의미한다. 가상은 속임수이며 동시에 신비적 작용이다. 두 번째의 가상(假象)은 철학용어로 '실제 있는 것처럼 보이나 객관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짓 현상'을 일컫는다. 반대말은 실재(實在)인데, 실재는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독립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세계'의 의미로 적용된다. 세 번째 가상(假相)은 불교용어로서 '겉으로 나타나 있는 덧없고 헛된 현실 세계'를 뜻하는 말로 반대말은 '진여(眞如)'이다. 네 번째 가상(假像)은 '실물처럼 보이는 거짓 형상'이라는 뜻을 갖는데, 주로 광학·화학분야의 용어로 사용되며, '본래의 결정 대칭에 따르지 않는 형태를 나타내는 광물의 산출 상태'를 일컫는다. 유사, 사이비, 모조 등의 의미와 관련이 있고, 실제 상황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것과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 활동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6]. 정리하면, 불교용어 '가상(假相)'을 제외한 한자가 다른 나머지 세 낱말 '가상'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속성은 현실, 실제, 실제에 상대 개념으로서 구체적인 양상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과 유사하거나, 현실과는 다른 상황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가상'의 사상사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플라톤의 동굴 비유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는데, '이데아-현실-그림자(매개)'에 대한 그의 철학은 매개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단초를 제공했다. 플라톤에게 매개는 실제 인식을 가로막는 방해물의 상징이다. 플라톤에게 매개된 현실은 "비실재의 무존재"이며 언제나 대체 가능한

반영물에 지나지 않는다. 가상의 담론은 과학적 사고가 지배하는 근대시대에 무르익는다. 데카르트는 『성찰(Meditation)』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감각(감각기관)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든지 제시하면서 가상의 개념을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가상의 오류는 잘못된 판단의 결과이다. 정신 활동의 결과로써 감각은 수동적이고, 진실도 거짓도 아닌 정보를 제공한다. 물속에 넣은 막대기는 눈이라는 감각기관으로 보면 굽어보이는데, 이는 설명될 수 있으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데카르트는 감각적 가상들은 실재적이며, '정상(normale)' 지각을 지배하는 법칙들만큼이나 지각 영역을 조직화하는 법칙들에도 똑같이 규제적임을 지적한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Critique de la raison pure, 1781)』에서 이성 이 경험의 영역을 넘어설 때, 그리고 이성이 스스로의 구성에 따라 상대적 인식의 주관적 원리를 사물자체의 객관적 원리와 혼동할 때, 이성 자체가 가상의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스피노자는 『윤리학(Ethique)』 제1부 부록에서, 우리 자신의 구성으로부터 세계를 해석하는 경향인 인간중심주의에서 목적론적 가상의 근거를 보았다. 목적을 위하여 하는 행동은 고질적이고 관습적인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다[7]. 이후 가상의 개념은 들뢰즈의 의해 차이와 생성·변화의 철학을 정초하기 위한 체계로 확립되었다. 들뢰즈는 플라톤을 원용하면서 동일성(유사성)의 논리에 대하여 시물라크르를 제시한다. 시물라크르는 현실의 복제물이다. 그의 시물라크르 개념은 전통적인 동일성의 논리를 와해시켰다. 그것은 마치 한 인물에 대한 이미지처럼, 그것이 현실의 겉모습은 그대로 표상하는 같지만 촬영을 하는 그 순간, 대상 인물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수많은 생각과 느낌까지 영상에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복제는 한순간도 자기 동일에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들뢰즈에게 있어서 복제는 대상과 같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뛰어넘어 이질적, 비유사성으로 새로운 자신의 위치를 창출하는 원본과는 전혀 다른 역동성과 자기정체성을 가지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으로 넘어 오면, 우리는 그 유명하고 도발적인 발언 마셜 맥루언의 "미디어는 메시지다(The medium is the message)"를 떠올릴 수 있다. 이 문구는

미디어 자체의 개별성에 따라 미디어의 내용이 달라 질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즉 미디어의 내용보다 미디어 자체가 갖는 역할과 효과가 더 크다는 의미다. 마셜 맥루언의 이와 같은 통찰은 글로벌 네트워크로 연결된 현대의 매개현실이 가상 담론과 연결 되는 것을 더욱 타당하게 하였다. 그는 미디어가 전 세계를 단 하나의 의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디어 사용자들을 ‘자기유도적인 무의식적 몰입’으로부터 깨우기 위해서는 미디어를, 그것이 근본적으로 어떠한 효과들을 가져 올 것인지의 측면에서 이해해할 필요가 있다[8].”고 경고한 바 있다.

III. 세월호 참사 보도의 가상적 전경

매체는 존재론적으로 발화의 현전성과 직접성이 유지되는 것을 전적으로 의존하므로, “당신은 실제현실을 보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지만, 실제현실이 수용자(시청자들)에게 매개되는 과정에서 선택적 노출, 선택적 지각, 선택적 기억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실제현실은 충분히 왜곡되어 전파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가상의 현실이 만들어진다[9]. 세월호 보도의 가상적 유형과 양상은 이를 반증한다. 2014년 11월, <방송기자연합회>의 ‘저널리즘 특별위원회 재난보도 연구분과’에서 발간한 간행물 『세월호 보도 ... 저널리즘의 침몰』은 세월호 보도의 문제점을 ‘사실 확인 부족·받아쓰기 보도’, ‘비윤리적·자극적·선정적 보도’, ‘권력 편향적 보도’, ‘본질 희석 보도’, ‘누락·축소 보도’ 등 5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이들 영역에 속하는 기사 총량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10]. 본 장에서는 ‘저널리즘 특별위원회 재난보도 연구분과’에서 분류한 다섯 개의 문제적 카테고리를 ‘가상’의 개념 안에서 서로 배타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네 개의 영역—1) 비현실 보도, 2) 비본질·허위 보도, 3) 권력지향형 축소·왜곡 보도, 4) 누락 보도 —으로 다시 분류해 세월호 보도에 나타난 가상적 전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비현실 보도

<방송기자연합회>의 ‘저널리즘 특별위원회 재난보

도 연구분과위원회가 ‘최악의 오보’, ‘보도 참사’라고 일컫는 주요 언론매체들의 세월호 보도의 문제는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라는 속보 자막에서 시작된다. 다음은 최민희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학생 전원 구조 보도 경위’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이다[11].

표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한 학생 전원구조 보도 경위

방송사	최초 오보시각	오보 보도형식	최초 정정시각
MBC	11:01	자막, 앵커코멘트, 기자 리포트	11:24
YTN	11:03	자막, 앵커코멘트	11:34
채널A	11:03	자막, 앵커코멘트	11:27
뉴스Y	11:06	자막, 앵커코멘트	11:50
TV조선	11:06	자막, 앵커코멘트	11:31
SBS	11:07	자막, 앵커코멘트, 기자 리포트	11:19
MBN	11:08	자막, 앵커코멘트	11:27
KBS	11:26	자막, 앵커코멘트, 기자 리포트	11:33

대형 해난 사고에서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전원 구조’라는 비현실적인 내용이 흘러나왔음에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방송사들은 상식적인 의심 없이 속보를 내보냈다. 위 표에서 드러난 대로 사고 당일 단원고등학교 강당에서 누군가가 “학생들이 전원 구조됐다”고 말한 것을 MBC에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했고, YTN은 이를 그대로 여과 없이 받아 보도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YTN보도를 근거로 ‘전원 구조’문자를 학부모들에게 발송했다. 속보 경쟁에 휘말린 언론사들이 사실 확인 과정 없이 받아쓰기식 보도 경쟁에 나섰고, 역으로 관계부처 또한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또 다시 확대 재생산하는 구조를 만들면서 실재(fact)가 사라진 ‘가상의 현실’이 만들어졌던 것이다[12]. 세월호 보도의 가상적 혼란은 사고 당일 KBS와 MBC, SBS 공중파 3사의 저녁뉴스에서도 이어진다. 2014년 4월 16일 사고당일, [표 2]의 공중파3사 KBS, MBC, SBS의 저녁뉴스의 보도내용과 [그림 1]의 4월 21일 뉴스타파가 4월 16일 사고 당일 작성된 해수부와 해경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을 비교해 보면 매체 간 현실 반영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림 1]은 4월 21일 뉴스타파 보도 화면의 내용으로 2014년 4월 16일 사고 첫날 작성된 해수부와 해경 보고서에 의거해 사고당일 실제 수중 투입

인력은 16명에 불과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표 2. 2016년 4월 16일 공중파3사 보도내용

4월 16일 KBS 뉴스9
(헤드라인) "육해공 총동원, 하늘·바다서 입체적 구조작업"
(앵커멘트) "구조작업에는 해경과 해군의 함정과 헬기는 물론이고 민간어선까지 모두 동원돼 하늘과 바다에서 동시에 입체적인 구조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리포트 주요내용) 사고 직후, 동원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이 현장에 투입, 투입된 해경함정만 81척, 헬기 15대가 동원됐고, 2백 명에 가까운 구조인력이 배 안팎에서 구조작업, 해군 유도탄 고속함을 시작으로 20여 척의 함정을 현장 구조에 즉각 투입, 수중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군 SSY, UDT/SEAL 소속 정예병력 170여명 구조에 투입
4월16일 MBC뉴스데스크
(헤드라인) "육해공 구조작업 '총출동'...함정 23척·병력 1천여명 동원"
(앵커멘트)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출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리포트 주요내용) 10시 10분쯤, 링스헬기를 시작으로 유도탄 고속함 한문식함과 고속정 10등이 속속 현장에 도착, 공군과 육군 전력까지 도착하면서 입체 작전이 펼쳐짐, 시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미 해군 상륙강습함정 '보탈 리 처드햄' 도 사고 해역으로 올 예정,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해군 해난구조대 SSU, UDT대원 급파, 세월호 탑승객 구조에는 해군 함정 23척, 군용기 12대, 병력 1천여 명이 동원됐고 청해진 화과 독도함은 밤 12시쯤 투입될 예정
4월16일 SBS 8시 뉴스
(헤드라인) "훈신의 구조...헬기에 함정에 어선까지"
(앵커멘트) "어두워지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도 더 세차게 물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구조 헬기와 인공 해역에 있던 해군, 해경 선박과 민간 어선까지 총동원돼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리포트 주요내용) 사고해역에는 해경, 공군, 소방 헬기 10여대가 작업을 벌임. 인근에 있던 어선 100여 척도 구조에 동참. 스쿠버 잠수사 40명을 포함해 육군 특전사 정병들과 해군 SSU 해난 구조대, YDT 특수전단도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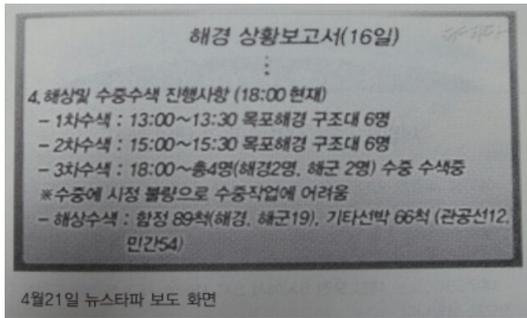


그림 1. 4월 16일자 해경 상황보고서

사고 둘째 날인 2014년 4월 17일 YTN은 “세월호 인양 작업 이르면 내일 개시”라는 헤드라인을 걸고, 해상 크레인이 움직였다는 단서만으로 다음날부터 인양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는 오보를 내보냈다. 인양작업이 시작되면 수색·구조 작업이 중지될 수밖에 없고, 구조를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들을 자극할 우려가 큰 데도 YTN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했다[13]. KBS는 4월 18

일 오후 4시 10분쯤 특보를 통해 세월호 내부에서 시신이 확인됐다는 보도를 하면서 세월호 참사 현장의 기사를 연결해 “엮여있는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수차례 반복했다[14]. 시청자에게 절망감을 주기 충분했던 이 보도는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날 MBN은 자신을 민간 잠수부라고 밝힌 한 여성을 생방송으로 연결해 인터뷰를 하면서, 해당 여성으로부터 “해경이 민간 잠수부들의 투입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라고 한다”거나 “생존자를 확인하고 소리까지 들은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실시간으로 보도했고, 이후 파문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잠수부 자격이 없었고, 발언의 상당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불과했다. ‘정부가 제대로 구조작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과는 별개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생방송으로 내보낸 것이다[15]. 치명적인 오보는 방송사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현장 유가족과 수용자들에게 극도의 혼란을 안겨 주었다. 실제 현실과 ‘매체 현실’의 차이가 만들어낸 혼란은 현장의 취재기자들에게도 충격이었다. 2014년 5월 9일 SBS취재파일의 보도한 다음의 내용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 봤어요. 지금 구조작업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들은 전부 구조작업에 몇 십 명, 몇 백 명 투입됐다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에요.”(4월 16일 사고당일 실종자 가족 저녁 인터뷰) 가족들의 언론에 대한 비판과 불신은 커져갔습니다. 체육관이나 팽목항에 묶여 있는 기자들과 달리 배를 타고, 헬기를 타고 구조 현장을 직접 갔다 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진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규모 구조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중략) “언론에서 구조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니 높으신 분들은 현재 상황을 모르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신문이나 TV를 보면서 구조 잘 되고 있구나 생각할 것 아니에요. 제발 현장 상황 잘 전해서 박근혜대통령이 구조 작업을 직접 지휘하게 해 주세요.” 저희 취재진을 직접 찾아 와 눈물로 호소하던 가족들의 말이 계속 머리를 맴돕니다. 한

없이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2014년 5월 9일 SBS취재파일)

2) 비본질·허위 보도

<방송기자연합회> 재난보도 분과위는 여론의 형성 과정에서 세월호 보도의 프레임이 본질과는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는 과정에 주목했다. 해경해체, 유병언·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로 이어지는 일련의 틀짓기(framing)는 세월호 참사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 과정에서 참사의 본질은 사라지거나 누락됐다. 사고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은 2014년 4월 21일, 검찰 수사가 유병언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부분의 매체들 역시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유병언과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매체가 누적과 편재, 공명을 통해 형성한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면, 4월 16일 참사 5일 후인 4월 21일부터 매우 뚜렷하게 변곡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후 수용자는 전 매체에서 매우 공통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림 2]의 그래프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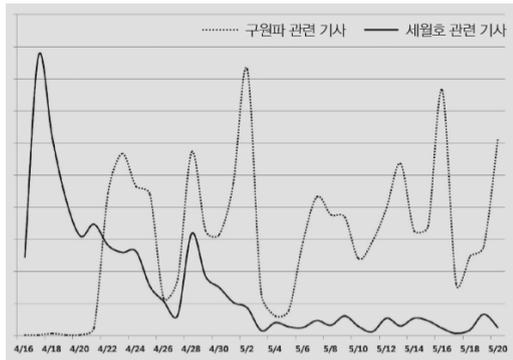


그림 2. 2016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구원파 관련 기사 보도 추이 (기독교복음침례회 제공)

위의 그래프는 첫째, 지배적인 여론이 무엇인지, 둘째, 특정 견해와 이미지의 교차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셋째, 특정인물과 대상, 즉 유병언과 구원파를 거리낌 없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세월호 참사보도의 프레임이 세월호 침몰사고 자체에서 유병언과 구원파로 전환됨

으로써 세월호 참사의 인과성을 유병언과 구원파로 특정하는 여론이 형성됐음을 짐작케 한다. 그래프가 끝나는 5월 20일 이후로도 유병언과 구원파의 보도는 지속되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본질이 사라진 세월호 보도의 왜곡양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월드컵 기간이 지나면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나 구조 과정의 문제, 관리 감독의 문제 등을 파헤치는 뉴스는 거의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지만, 유병언 관련 뉴스만은 예외였다. 특히 행방이 묘연한 유병언 씨가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거의 사라졌던 세월호 관련 뉴스는 다시 붓물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때부터 말그대로 세월호 뉴스가 아닌 ‘유병언 뉴스’의 전성시대가 열렸다. 모든 방송뉴스가 유병언 소식을 연일 톱으로 다루면서, 이따금씩 세월호 구조 상황이나 재판소식 정도를 덧붙이는 뉴스가 이어졌다. 그나마 세월호 참사 100일에 맞춰 다시 한 번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뉴스들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곧바로 다음날부터 다시 유병언 뉴스가 이어지고, 그마저도 열흘 정도 만에 서서히 자취를 감췄다[16].”

2014년 6월 13일에는 1996년 동해안 무장간첩 침투 사건이후로 18년 만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를 위한 임시 반상회가 전국 24만 곳에서 열렸다. 유병언 세모그룹 전회장의 사진이 인쇄된 수배전단과 신고절차 등을 알려주는 반상회보가 배포됐고,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수배자를 검거하는 목적으로 열리는 임시반상회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2014년 7월 2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유병언 뉴스 트래픽은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창궐했던 유병언·구원파 관련 기사는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일간지, 인터넷 언론 등 230여개 매체가 세월호 참사 5일 후인 2014년 4월 21일부터 2014년 9월 중순까지 약 150여일 동안 보도한 구원파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관련 기사 16,117건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유가족과 구원파에 의해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에 조정이 신청되었다. 이는 하루 평균 100건이 넘는 분

량이다. 16,117건의 유병언·구원과 관련 조정신청으로 언론중재위원회는 전년보다 무려 800퍼센트 증가한 조정참사를 맡으며 2014년 전체 조정참사 중 84.6%(16,117건)에 해당하는 유병언·구원과(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조정을 처리했다. 2015년 3월 24일 언론중재위원회 보도 자료에 따르면, 구원과 참사 조정처리결과는 취사가 94.6%를 차지했고 조정불성립은 610건으로 3.8%에 불과했다[17]. 구원과와 언론사들과의 합의로 정정된 보도의 주요 쟁점을 간추리면 [표 3]과 같다.

3) 권력지향형 왜곡 보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도의 추상작용은 매체 생산 종사자들의 사회적 관계, 사회 내의 권력구조,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매개 현실 구성의 ‘질적인 차이’를 보여 주었다. 권력편향적인 보도가 이루어지다 보니 실제 사실은 축소되거나 왜곡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KBS 뉴스 9>은 박 대통령이 팽목항 현장을 방문한 소식을 다룬 보도에서 대통령 중심의 현장상황을 전달하면서 더딘 구조작업에 대한 실종자 가족들의 절박하고 애절

한 항의와 원망의 현장음은 오디오 편집으로 삭제해 실제 현실과 상황을 왜곡해 전달했다. 당시 참사현장에 있었던 취재기자의 취재후기는 이를 뒷받침하는데, 다음은 그 내용의 일부이다.

“찍지 마! 찍지 말라고! 카메라 치워!” 얼굴이 별것계 달아오른 실종자의 아버지가 가족대책본부 천막 앞에 진을 치고 있던 취재진들에게 욕을 하며 카메라를 모조리 부숴버릴 듯 달려들었습니다. (중략) 분노로 떨리는 어머니의 음성, 아버지의 고함소리, 호느낌에서 통곡소리까지. 우리 뉴스에서 볼 수 없었던, 기자로서 제가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들입니다. 5월 4일 대통령은 사고 이후 두 번째로 진도를 방문했습니다. 팽목항의 혼란스러움과 분노들을 우리 뉴스(KBS)는 다루지 않았습다. 육성이 아닌 컴퓨터그래픽으로 처리된 대통령의 위로와 당부의 말씀만 있었을 뿐입니다[18].”

5월 7일 <MBC 뉴스데스크>의 세월호 사고 현장에 투입된 잠수사의 죽음을 계기로 보도한 ‘분노를, 슬픔을

표 3. 구원파 관련 정정 보도 내용

구분	기사내용	보도형태
청해진 관련	이준석 선장은 구원파다	정정/반론
	선사 직원의 대부분이 구원파다	정정/반론
	세월호 사고 당시 가장 먼저 구조된 사람들은 구원파 신도다	정정/반론
금수원 관련	금수원의 유병언 전 회장의 소유다	정정
	금수원은 일반인의 통제를 엄격히 한다	정정/반론
	금수원 내에 지하병커 시설이 있다	정정/반론
오대양 관련	구원파 교인들은 금수원 안에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다	정정/반론
	오대양 참사는 구원파와 관련이 있다	정정
	오대양 참사 때 자살한 사람들 전원이 구원파 신도였다	정정
교리 관련	구원파는 ‘오대양교’ 이다	정정
	유 전회장이 오대양참사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정
	구원파는 예배와 기도를 부정한다	반론
교회 관련	유병언의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기도와 예배다	반론
	구원파에서는 종말론을 빌미로 재산을 갈취한다	반론
	‘킬러팀’, ‘미행팀’, ‘그림자팀’ 으로 불리는 집단이 실제 구원파내에서 존재하고, 이들이 탈퇴한 신도들이나 구원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압박함	정정
유병언 관련	구원파는 탈퇴하면 협박과 보복을 당함	정정
	유 전회장이 50억 골프채를 구입해 정관계 로비했다	정정
	유 전회장을 전두환 전대통령이 비호했다	정정
	구원파는 유병언을 예수로 여긴다	정정/반론
	구원파는 유병언을 교주로 여긴다	정정/반론
	유 전회장과 김혜경 사이에 자녀가 있다	정정
	유 전회장이 밀항을 시도했으며 브로커에 100억원을 제시했다	정정
유 전회장이 프랑스와 캐나다에 망명을 시도했다	정정	
유 전회장이 1997년 세모그룹 부도 당시 법정관리 절차를 악용해 수백억을 탐감받았다	정정/반론	

넘어서' 라는 제목의 뉴스는 왜곡보도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일부 실종자 가족들과 희생자 가족들의 조급증으로 잠수사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뒤앙스의 이 보도는 사고 당시 잠수사에 대한 의료나 안전 지원이 열악했던 상황은 언급하지 않고, 특수성을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해 현실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흔들어 놓았다. 2014년 5월 12일 MBC기자회 소속 30기 이하 기자 121명은 성명을 통해 MBC의 권력편향성 보도 양상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지난주 MBC 뉴스데스크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모욕하고 비난했습니다. 세월호 취재를 진두지휘해온 전국부장님이 직접 기사를 썼고, 보도국장이 최종 판단해 방송이 나갔습니다. 이 보도는 실종자 가족들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해경청장을 압박’하고 ‘총리에게 물을 끼얹고’ ‘청와대로 행진’을 했다면서, ‘잠수부를 죽음으로 떠민 조급증’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심지어 중국인처럼 왜 ‘애국적 구호’를 외치지 않는지, 또 일본인처럼 슬픔을 ‘속마음 깊이 감추지 않는지’를 따지기까지 했습니다. 국가의 무책임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를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그들을 훈계하면서 조급한 비애국적 세력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중략)…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해경의 초동 대처와 수색, 그리고 재난 대응체계와 위기관리 시스템 등 정부 책임과 관련한 보도에 있어, MBC는 그 어느 방송보다 소홀했습니다. 정몽준 의원 아들의 ‘막말’과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 등 실종자 가족들을 향한 가학 행위도 유독 MBC 뉴스에선 볼 수 없었습니다. 또 유족과 실종자 가족을 찾아간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는 빠짐없이 충실하게 보도한 반면, 현장 상황은 누락하거나 왜곡했습니다. 결국 정부에 대한 비판은 축소됐고, 권력은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 됐습니다.(하략)[19]”

2014년 5월 30일, 언론노조 YTN지부, YTN 기자회견, YTN 방송기술인협회 명의로 발표된 성명에서도 권력편향적 보도에 대한 문제의식과 비판적 시각이 드러난다.

“‘빨치산’같은 사정 당국의 감정적 표현을 여과 없이

인용하며 추격과 검거 과정에만 함몰돼 유병언 검거가 참사의 귀결인 양 몰아가고 있다. 이리면서 온 국민에게 충격과 좌절을 안겨준 사고 이후 구조 과정에 대한 본질적인 보도는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이같은 보도 행태는 시청자들로부터 세월호 85참사 국면을 피해가려는 권력의 정치적 의도에 발맞추는 방송으로 비난받을 소지를 키우고 있다.”

4) 누락 보도

비본질보도와 권력편향적 왜곡보도의 사례는 수용자의 비판적 의심이 작동될 수 있는 여지라도 주어진다. 그러나 누락보도는 비사실보도와 마찬가지로 인식과 시각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데 그 심각성 있다. 누락보도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0].

① 청와대 관련 보도 누락

정부 기관들이 모두 책임 회피에 급급해 세월호 구조 작업의 컨트롤타워가 실종됐다는 여론이 비등하던 4월 23일 김장수 안보실장은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해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그날 KBS, MBC, SBS, YTN 모두 이 보도를 누락했다. 다음 날인 4월 24일 김장수 실장의 발언이 잘못된 것임을 밝혀주는 해양수산부 매뉴얼이 공개됐다. “재난 발생시 청와대 안보실이 컨트롤타워”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이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방송사 메인뉴스에서는 이 보도를 찾아볼 수 없었다. YTN에서는 김장수 실장의 발언파문 발생기사가 존재하지 않아 사회부의 해양수산부 매뉴얼 기사가 한동안 승인되지 못하는 해프닝까지 있었다. 그러나 김장수 실장의 문제 발언을 누락시킨 KBS, MBC, SBS 공중파3사와 YTN은 한 달 뒤, 김 실장이 경질될 무렵인 5월 22일 보도에서 김실장의 경질원인이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고 한 발언에 있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② 정부기관 비판 누락

침몰사고와는 별도로 해경의 초기대응과 구조작업을 주도한 민간업체 ‘언딘’과의 유착관계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감시의 역할은

해야 하는 방송사들은 해경에 대한 비판이 소극적이었고, 이런 소극적 보도가 청와대의 개입 때문이라는 사실이 KBS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의 폭로로 밝혀졌다. 김시곤 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김환영 KBS 사장을 통해 “해경을 비판하지 말라” “박근혜 대통령 보도는 뉴스 시작 20분 안에 보도하라”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 수사 보도 축소하라” 등을 요구하며 보도에 간섭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해경 비판 보도가 상당히 완화되어 나갔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이는 김시곤 국장의 징계무효확인소송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되었다.

③ 고위 공직자들의 발언 파문 누락

대표적인 사례로, “80명 구했으면 대단한 것 아니냐”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해경 간부의 직위 해제(4/23), “KBS에 보도 협조 요청했다”고 인정한 정홍원 총리의 발언(5/21), “민간 잠수사들이 일당 100만원, 시신 1구 인양하면 500만원 받는다”고 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5/25)을 KBS, MBC, YTN은 누락시켰다. 이 밖에도 4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4월 29일 합동분향소를 방문했을 때 조문객을 위로하는 장면이 연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제기를 YTN은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MBC와 채널A, TV조선 등은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생활 논란은 문제 삼아 비난하는 보도를 하면서도 김씨가 단식 40일째에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과 국회에서 단식 중이던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350만명 서명부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단원고 생존 학생들이 특별법 통과를 염원하며 국회까지 행진한 사실은 아예 보도에서 누락시켰다.

IV. 매개현실의 한계

매개된 현실과 실제 현실의 간격은 ‘세계의 인식’이라는 문제를 필연적으로 연루시킨다. 만약 우리가 실제세계를 감각경험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면, ‘내가 본 것이 진짜이고, 진짜이기 때문에 참된 것’이라는 플라톤과 대립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방식을 떠올릴 수 있다. 아

리스토텔레스에게서의 매개는 인식활동의 출발이다. 이는 경험론과 실증주의로 이어져 관찰될 수 있는 현실만이 과학적 지식이 되는 ‘시각 중심주의’를 형성했다. 외부세계와 내부세계의 구분, 자아와 타자 사이의 구분은 ‘관찰’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관찰은 시각중심주의적이고, 반성적이지 않으며, 대상을 계량화시킨다는 점에서 현실을 설명하는 도구가 된다. 지식과 세계를 관찰할 수 있는 속성으로 환원시킨 실증주의적 인식론에 따르면,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21]. 그러나 젠크스(Jenks, 1995)의 지적처럼, 실증주의가 말하는 ‘순수인식’은 사실상 ‘부분 인식’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관찰하는 사람의 세계관을 현상에 대한 탐구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사람은 각자의 세계관으로 바라보며, 세계관은 가치중립적으로 순수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경험으로부터 형성된다[22]. 매체 연구에서 실증주의 방법론을 수용하는 다원주의 학자들은 언론인들이 가치를 배제하고, 사실을 공정하게 보도한다면 언론의 현실반영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낭만적 관점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동등할 수 없고, 정보를 독점하는 개인이나 조직들만이 언론의 취재망에 포함된다고 보는 엘리트주의 시각을 받아들인다면 즉각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가브리엘 와이만은 매체에 의해 현실이 총체적으로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한다. “매체 이미지는 ‘진짜’ 현실을 왜곡하거나, 형편없이 재현하거나, ‘진짜’ 상황의 한쪽만을 부각시키거나, 아니면, 관객의 구미에 맞게 다시 정의한다. ‘가짜 현실’과 ‘진짜 현실’의 비교는 대중 매체로 소통되는 재구성 현실과 실제 현실 사이의 틈새를 드러낸다. 뉴스와 보도가 모두 같은 내용을 반복해 메시지의 영향력을 강화할 때, 시각의 선택 여지는 더욱 사라진다[23].” 엘리자베스 노엘-노이만은 매체는 현실로 편재되어 있어 어느 누구도 그 메시지에서 도피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24]. 그녀의 유명한 ‘침묵의 나선 spiral of silence’ 이론은 여론을 형성하는 매체의 강력한 특성을 ‘누적성’, ‘편재성’과 더불어 ‘공명’개념으로 설명한다. 여기에서 공명이란 여러 신문, 잡지,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매체들이 함께 개발하고 공유하는 쟁점이나 사건의 통일된 그

림을 가리킨다[25]. 통일된 이미지는 현재 지배적인 견해와 양상을 나타내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선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대중매체가 제시하는 방식으로 쟁점을 수용하게 된다. 누락·왜곡 보도는 반복의 방식으로 실상을 은폐·엄폐할 수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가상성은 수용자의 내면화를 거쳐 의미를 획득한다[26]. 많은 연구에서, 수용자들은 매개된 (비)현실을 ‘실제 현실’로 받아들이고 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론의 생산과정과 권력구조와의 역학관계에 따라 매체가 반영하는 현실이 다르게 나타났다[27]. 정보가 권력이나 소수의 정치집단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 언론이 반영할 수 있는 현실과 그것이 만들어 내는 여론의 스펙트럼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권력의 집중도가 높고 언론을 통제할 수 있으며, 언론과 권력의 이해관계가 얽힌 환경에서 정부 및 여당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여론이 조성되는 현상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사건의 역사적 전환을 만들어내는 매체의 역할이 권력의 사회화, 사회 통제, 사회 주도권 개념들과 쉽게 연결되는 이유이다.

매개현실의 가상성과 한계는 기술 환경적인 측면에서 맥루언의 “핫”미디어와 ‘쿨’미디어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핫’미디어는 하나의 감각이 ‘고밀도’의 상태로 확장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밀도’라는 것은 정보가 가득 차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운드를 포함하는 TV는 사진에 비해 밀도, 즉 강도가 높다. 반면, 만화는 사진보다 정보의 밀도가 낮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상호개념’과 일치한다. 왜냐하면 쿨 미디어에서는 너무 적은 정보만이 주어지므로 많은 정보가 수용자에 의해 채워지기 때문이다[28]. 이것은 마치 나쁜 시력을 향상시키는 교정 렌즈처럼 매체가 현실성을 총체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나쁜 시력에 일정색의 과장을 차단하는 색안경으로 기능해 현실이 삭감하거나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가 될 수 있는 양면성을 보여준다[29]. 매개현실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매체의 존재론적 의미를 낙관적으로 바라봤던 맥루언의 시각은 프랑스의

저명한 이론가들, 폴 비릴리오와 자크 데리다, 보드리야르에 의해 비판적인 관점으로 수정된다. 비릴리오에 의하면, 보편적 상호작용인 원격통신기술에 의해 현전하는 유일한 진실은 사라지고, 세계는 축소되며 실재는 소멸할 위기에 처한다[30]. 데리다는 매체의 ‘현전’이 만들어 내는 투명성을 긍정한 맥루언의 담론을 극단적으로 비판하면서, 매체의 현전성이란 형이상학적 유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보드리야르에 의하면, 매체의 추상작용이 모든 교환과정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매개현실은 응답을 영원히 금기하는 것이다. “질프전은 없다”라는 그의 선언처럼 세계는 존재하는 것의 총체가 아니라, 이미지화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미지화되어 읽혀질 수 있는 것의 총체이다. 세계와 세계사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독해체계의 내적 일관성만이 문제가 되는, 즉 미디어(기표)는 더 이상 기의(사실로서의 현실 또는 실재)를 지시하지 않음으로써 기표와 기의는 영원히 유리된다. 보드리야르는 바로 이러한 추상 작용 위에 사회 통제와 권력의 체계가 구축된다고 보았다[31]. 같은 맥락에서 벤자민 드모트는 표면성을 쫓다가 현실을 포기하는 매체의 가상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스타일과 방법이 전부이며, 현실세계는 베트남이든 어디든 어떤 의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32].”

매개현실의 한계는 언어기호학의 영역에서도 심각하게 논의될 수 있다. 언어기호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에게 지각되는 세계란 언어를 포함하는 기호에 의해서 의미가 만들어지는 세계이므로 기호에 의한 조작이 가능한 세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마주치고 부대끼며 피부로 느끼고 보는 이 세계는 일종의 기호적으로 구성된 가상의 세계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실제세계는 설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언어란 기표와 기의의 결합으로 생성되는데, 이때 언어의 뜻을 나타내는 기의란 언어 기호가 지칭하는 지시대상이 아니라 언어 기호들 간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결정된 값 혹은 가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33]. 사르트르는 언어의 사용

이 화자의 마음속의 실상을 드러내는 장치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사르트르는 아버지가 1차 세계 대전에 공군조정사로 참전하였다가 전사하는 바람에 어린 시절 외할아버지 집에서 자랐다. 그는 말을 배워 나가는 과정에서 말이라는 것이 결코 자신의 속마음이거나 실상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의 소설 속에서 회고한다. 그는 어릴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말을 사용했던 것이다[34]. 만일 언어가 타자에게 인정받기 위한 욕망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가령 뉴스보도를 하는 기자는 자신의 안위와 출세의 욕망에 이끌려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마음속 실상과는 전혀 다른 멘트를 멋진 수사와 억양으로 보도할 수 있을 것이다. 실은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일상생활 속에서 듣는 사람을 의식하고 말을 한다. 만약 말이라는 것이 발화자의 진실을 드러냄과 동시에 감추는 일에 동일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 언어를 통해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불확실해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개현실의 한계와 그 가상은 마치 영화 <매트릭스>를 연상케 한다. 매트릭스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가상과 실제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는 가상세계에 대한 실제성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와 가상을 구분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다시 까마득한 과거에 회귀로서 어두운 그림자를 떠올리게 된다. 플라톤의 의미로 이것은 미디어의 동굴이다.

V. 나오는 말

매개현실이 현실의 실상을 반영하는 데 뚜렷한 한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언론 수용자의 대부분은 보도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인다. 주관성이 강하게 개입된 사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실을 다루는 뉴스 보도만을 놓고 봤을 때 수용자 조사는 보통 이상의 신뢰도를 보여준다. 세월호 참사 발생 1년 후인 2015년 한국언론재단의 언론 수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까지 뉴스 보도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응답은 보통 이상으로 5점 척도(전혀 신뢰하지 않음 1점, 별로 신뢰하지 않음 2점, 보통 3점, 대체로 신뢰함 4점, 매우 신뢰함 5점) 기준으로 평균 3.37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매개현실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대상자들이 언론 보도를 받아들이는 수용인식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의 내용은 2014년 6월 10일 SBS기자협회가 '세월호 보도 관련 내부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언론 보도에 대한 세월호 유가족의 입장을 요청하였고,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측에서 이에 회신한 내용의 일부로써 유가족들의 언론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유병언 일가와 구원파로 언론을 돌리고, 여론을 움직이라는 정부의 압박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어떤 매체에서도 단 한 번의 거짓된 보도나 과장된 보도 혹은 축소된 보도를 하지 않은 매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정보가 필요하시고, 자료가 필요하실 때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를 절대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보도하지는 말아주시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보도를 원합니다. (중략) 죽은 아이들을 생각하시고,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는 정직한 보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뉴욕타임스의 전도유망한 기자였던 마이크 핀켈(Mike Finkel)의 실화를 다룬 재연다큐영화 <트루스토리(True Story, 2015)>는 세월호 보도 행태에 비추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화에서 기자는 코코아 농장에서 구호기관들이 어린 소년들을 상대로 자행한 학대와 비리를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다섯 소년에게 일어난 개별적인 이야기를 한 소년의 이야기인 것처럼 구성해 보도한다. 기사는 독자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갈 수 있었지만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한 소년에게 모두 일어난 일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소년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타임스는 정정기사와 함께 사과문을 싣고 풀리처상 후보에 오르내리는 뉴욕타임스 최고의 기자를 단

칼에 해고한다. 우리는 여기서 보도에 대한 신뢰가 언론사의 존폐와 직결되는 미국 저널리즘의 수준을 엿볼 수 있다. 미국 언론사는 매개현실에 내재된 가상의 위험성을 혹독하게 경계함으로써 건강해졌다. 세월호 사건에서 언론 보도의 폐해는 실로 참사 수준이었다. 세월호 참사에서 대한민국 언론이 가상의 함정에 매몰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과 문제는 크게 언론사 경영진·보도국 간부의 권력 편향과 미디어에 대한 취재원들의 근원적 자기반성의 결여에서 비롯되었다.

2016년 5월 12일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은 자신의 징계무효확인소송 과정에서 국장업무일일기록과 청와대 이경현 홍보수석과의 대화 녹취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 비망록과 녹취자료엔 권력의 보도개입 시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권력이 임명한 사장과 청와대의 홍보수석이 공영방송 뉴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케 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KBS의 이사회 구성은 여야 추천 7:3 이고, MBC의 경우는 6:3 이다. 여권 이사들이 KBS와 MBC의 사장을 선임하고 있는 구조이다. YTN도 마찬가지이다. 권력이 공영방송의 최고결정권자를 임명하는 구조에서 언론이 권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35] 보도의 독립장치가 보장되지 않으면 균형과 중립도 사라진다. 방송사의 보도국장이나 보도본부장은 뉴스의 최종 편집을 결정하는 막중한 권한이 부여된 자리이다. 방송사 사장과 뉴스편집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뉴스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방적인 권한이 행사되지 못하도록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사 사장을 임명하는 현재의 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중립적인 기구를 마련해 방송사 사장과 보도국 간부 선출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2015년 11월 19일 개봉해 청소년관람불가영화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내부자들>은 일그러진 언론인의 모습을 메타포로 보여주었다. 중앙일보 이하경 논설주간은 2015년 12월 23일자 칼럼에서 영화와 현실과의 괴리를 언급하면서도 “언론이 살아있는 권력과

자본을 목숨 걸고 감시하고 있는냐고 묻는다면 나는 즉답을 주저할 것이다.”라고 고백한다. 그의 칼럼은 결코 가볍지 않게 다가온다. 2014년 한국언론재단의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 의하면, 언론인에 대한 신뢰도를 5점 척도(매우 낮다 1점, 대체로 낮다 2점, 중간이다 3점, 대체로 높다 4점, 매우 높다 5점)로 물어본 결과 언론인에 대한 신뢰도는 2.68로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2010년 이후 언론인에 대한 신뢰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이 개선된다면 기자 개개인 미디어에 대한 근원적인 자기성찰이 있어야 한다. 매개현실은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주관성에 따라 구성되고 해석된 현실이란 점을 침체하게 감각하고 경계해야 한다. 세월호 보도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권력에 대한 언론인의 감시, 견제, 저항, 비판의 역할이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였다. 언론인의 사명을 가능케 하는 원천은 합리적인 의심과 문제의식이며, 이러한 문제의식이 구체화되기 위해선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과 가치판단의 정합성이 항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자들 스스로 자기반영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인 보도 규범의 제정과 실행의 유효성이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의 작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의 방송 결과물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현장의 일선기자들과 보도국 간부들이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구성원 전체가 하나의 집단지성으로서 보도방향에 대해 활발하게 논쟁하고 고민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민주적인 운영 체계를 혁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세월호의 진실은 여전히 수면 아래 머물러 있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조타실수라는 검찰의 주장은 재판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참사의 역사적 진실은 여전히 구성되지 못한 채 국정원 대선개입논란, 국정원 간첩조작사건과 더불어 희미해졌고, 침몰된 표상과 절규, 구원파와 유병언의 가상적 이미지만 관화처럼 날카롭게 각인되었다. 어쩌면 세월호의 현장 자체가 가상이었을지 모른다. 세월호가 가라앉은 차갑고 어두운 해저는 어떤 보편적인 감각이나 객관적인 조망도 허락되지 않는, 설령 다가간다고 해도 정부와 해경의 육중한 통

제로 가로막힌 접근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부재의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원천 봉쇄된 현장을 대체할 또 다른 현상으로서의 '가상'이 필요했는지 모른다. 2016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닷새 후인 4월 21일부터 9월 중순까지 5개월 동안, 지상파, 중편, 보도채널, 일간지, 인터넷 언론 등 230여 언론사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구원파에 대해 보도한 전체 보도의 94.6% 퍼센트인 15,254건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해 조정처리(조정불성립 3.8%)되었다. 230여개의 언론사가 세월호 참사 이후 5개월 동안 매일, 무려 100건 이상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과 구원파 관련 허위·거짓 보도를 쏟아 낸 셈이다. 실제 사건에서 드러나야 했던 핵심적인 사안과 매개된 현실을 통해 사람들의 머릿속에 만들어진 인식이 크게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 세월호 보도 전반에 걸쳐 나타난 특징이자 현상이다. 세월호 보도에서 실제 현실에 대한 지각과 인상, 실제경험은 순수하게 보존되지 않았다. 그러나 반성과 성찰은 충분히 일어나지 않았다. 필자가 세월호 언론 보도의 가상적 전경을 탐색하면서 찾은 오늘날의 가장 희망적인 발견은 매개현실의 '가상성'이 진실에 대한 우리의 감각과 수용 태도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한다는 점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론보도의 잘못된 큰 줄기를 바로잡지 못했지만 일부 취재원들과 일선기자들 사이에서 자기반성과 문제제기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위안을 얻는 것으로 본 연구의 척박한 탐색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연구의 계기를 제공해 준 친애하는 벗 장웅과 그나마 논문 형식의 글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탁월한 선행연구자들, 한국 언론의 진보를 위해 진정 어린 자기반성으로 헌신하신 <방송기자연합회> ‘저널리즘 특별위원회 재난보도 연구분과’ 위원님들과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로 고통 받는 모든 분들께 필자의 이 부끄럽고 미천한 수고를 바칩니다.”

참 고 문 헌

[1] 윤영철, “언론의 현실 재구성에 관한 연구: 우리

나라 신문의 남북관계 보도 분석,” 신문학보, 제26호, pp.251-252, 1991.

[2] 윤영철, “언론의 현실 재구성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신문의 남북관계 보도 분석,” 신문학보, 제26호, p.252, 1991.

[3] 임종수, “가상성과 일상성의 컨버전스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21 2009.

[4] 크리스토퍼 호락스 저, 김영주, 이원태 역, *마셜 맥루언과 가상성*, 이체이북스, pp.46-47, 2002.

[5] Paul Levinson, *Digital McLuhan: A Guide to the Information Millennium*, London : Routledge, p.39, 1999.

[6] 이성영, “국어교육의 가상성과 실제성의 관계,” 독서연구, 제28호, pp.62-63, 2012.

[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9481&cid=41799&categoryId=41800>

[8] Benedetti and DeHard, “Making Contact with Marshall McLuhan,” interview by Louis Forsdale, p.198, 1994.

[9] 가브리엘 와이만 저, 김용호 역, *매체의 현실구성론*, 커뮤니케이션북스, pp.15-16, 2003.

[10] 방송기자연합회, ‘저널리즘 특별위원회 재난보도 연구분과’, *세월호 보도 ... 저널리즘의 침몰*, 2014.

[11] 방송기자연합회, ‘저널리즘 특별위원회 재난보도 연구분과’, *세월호 보도 ... 저널리즘의 침몰*, pp.12-13, 2014.

[12] 방송기자연합회, ‘저널리즘 특별위원회 재난보도 연구분과’, *세월호 보도 ... 저널리즘의 침몰*, pp.14-19, 2014.

[13] 방송기자연합회, ‘저널리즘 특별위원회 재난보도 연구분과’, *세월호 보도 ... 저널리즘의 침몰*, pp.12-21, 2014.

[14] 방송기자연합회, ‘저널리즘 특별위원회 재난보도 연구분과’, *세월호 보도 ... 저널리즘의 침몰*, p.29, 2014.

[15] 방송기자연합회, ‘저널리즘 특별위원회 재난보도 연구분과’, *세월호 보도 ... 저널리즘의 침몰*, p.27, 2014.

[16] 방송기자연합회, '저널리즘 특별위원회 재난보
도 연구분과', *세월호 보도 ... 저널리즘의 침몰*,
pp.47-48, 2014.

[17] <http://www.pac.or.kr>

[18] 방송기자연합회, '저널리즘 특별위원회 재난보
도 연구분과', *세월호 보도 ... 저널리즘의 침몰*,
p.186, 2014.

[19] 방송기자연합회, '저널리즘 특별위원회 재난보
도 연구분과', *세월호 보도 ... 저널리즘의 침몰*,
pp.189-190, 2014.

[20] 방송기자연합회, '저널리즘 특별위원회 재난보
도 연구분과', *세월호 보도 ... 저널리즘의 침몰*,
pp.54-70, 2014.

[21] 주창윤, *영상이미지의 구조*, 나남, pp.14-17, 2003.

[22] 주창윤, *영상이미지의 구조*, 나남, p.18, 2003.

[23] 가브리엘 와이만 저, 김용호 역, *매체의 현실구
성론*, 이제이북스, p.464, 2003.

[24] 가브리엘 와이만 저, 김용호 역, *매체의 현실구
성론*, 이제이북스, p.30, 2003.

[25] 가브리엘 와이만 저, 김용호 역, *매체의 현실구
성론*, 이제이북스, p.45, 2003.

[26] 가브리엘 와이만 저, 김용호 역, *매체의 현실구
성론*, 이제이북스, p.464, 2003.

[27] 윤영철, "언론의 현실 재구성에 관한 연구: 우리
나라 신문의 남북관계 보도 분석," *신문학보*, 제26
호, p.256, 1991.

[28] 크리스토퍼 호락스 저, 김영주, 이원태 역, *마셜
맥루언과 가상성*, 이제이북스, pp.51-52, 2002.

[29] 크리스토퍼 호락스 저, 김영주, 이원태 역, *마셜
맥루언과 가상성*, 이제이북스, p.23, 2002.

[30] Paul Virilio, *Open Sky*, London: Verso, p.21,
p.62, 1997(재인용).

[31] 송태현, "맥루언과 보드리야르:미디어는 메시지
다에 대한 보드리야르의 해석," *와국문학연구*, 제
26호, pp.209-210, 2007,

[32] 크리스토퍼 호락스 저, 김영주, 이원태 역, *마셜
맥루언과 가상성*, 이제이북스, p.16, 2002.

[33] 슬라보예 지젝 외, 이윤경 역, *매트릭스로 철학하*

기, 한문화, pp.208-209, 2003.

[34] 슬라보예 지젝 외, 이윤경 역, *매트릭스로 철학하
기*, 한문화, p.207, 2003.

[35] 방송기자연합회, '저널리즘 특별위원회 재난보
도 연구분과', *세월호 보도 ... 저널리즘의 침몰*,
pp.217-218, 2014.

저 자 소 개

이 성 욱(Sung Wook Lee)

정희원



- 2000년 6월 : 파리국립1대학교
판테온-소르본 영상영화학과
(학사)
- 2003년 6월 : 파리국립1대학교
판테온-소르본 영상영화학과
(석사)

- 2011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박사수료)
- 2006년 3월 ~ 현재 : 한라대학교 정보통신방송공학
부 교수

<관심분야> : 영상미학, 영상 연출론, 시나리오